

# 훈민정음 반포 570돌 기념 불교와 한글, 한국어 국제학술대회

## ㉠ 때와 장소

- ▶ 제1일: 2016.08.18(목) 13:00~17:30, 국립한글박물관
- ▶ 제2일: 2016.08.19(금) 10:00~18:20, 연세대학교 백양누리라운지

## ㉡ 주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선학회

## ㉢ 후원

국립한글박물관, 한국연구재단

## ㉣ 발표 및 주제

### ▶제1일차(국립한글박물관)

구분	구분	발표자	발표 제목
개막식 사회: 이태승(위덕대)			
여는 말	13:00~13:20	최홍식(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축사		월운 해룡 스님(전 동국역경원장)	
기조강연	13:20~14:00	남기심(연세대)	불교와 한글, 한국어
사회: 김봉좌(서울시립대)			
주제발표	14:00~14:40	노마 히데키(일본 메이지가쿠인대)	한글의 탄생과 불교사상의 언어
	14:40~15:20	서상규(연세대)	말뭉치로서의 한글 대장경과 그 활용
	15:40~16:20	홍현보(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불경언해 역주 현황과 의미
	16:20~17:00	신규탁(연세대)	화엄경과 한글 번역

### ▶제2일차(연세대학교)

구분	구분	발표자	발표 제목
1부 사회: 한송화(연세대)	10:20~11:00	김현덕(동국대)	실담문자의 동아시아 전래와 한글
	11:00~11:40	정우영(동국대)	훈민정음 표기법과 불전언해
	11:40~12:20	김슬옹(인하대)	불교를 통한 훈민정음 보급의 의미
점심(12:20~14:00)			
2부 사회: 구인모(연세대)	14:00~14:40	차차석(동방대학원대)	운허의 법화경 한글번역
	14:40~15:20	김치온(진각대)	금강경과 초기의 한글번역
	15:20~16:00	이재수(동국대)	한글대장경 개역전산화사업의 성과와 과제
휴식			
3부 사회: 김진웅(연세대)	16:20~17:00	백해퍼(중국 중앙민족대)	<조선어사전>의 불교 어휘
	17:00~17:40	김한샘(연세대)	국어사전과 불교 언어
	17:40~18:20	유근선(연세대)	<능엄경언해>활자본과 목판본의 대조와 말뭉치 구축 -권 7을 중심으로-

구분	구분	발표자	발표 제목
답는 말		서상규(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원장)	

## ● 취지

올해는 <훈민정음> 해례본 간행, 한글 반포 570돌이 되는 해이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과 보급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이 아주 컸음은 언문으로 읊긴 각종 불경언해서가 이를 증명해 준다. 이렇게 훈민정음은 한글, 한국어 발전과 불교 발전에 동시에 기여한 바 크다. 그동안 이러한 비중있는 상호 관계를 제대로 조명한 국제학술대회는 없었다. 더욱이 정보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조명한 대회는 한 번도 없었다.

불교는 고려시대 때 지나친 정치적 권력화와 각종 세속적인 문제로 조선 왕조가 세워지는 직접적 빌미가 되었고 새 왕조의 송유역불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종교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의식과 생활양식의 기제로 작동되어 왔다. 특정한 계층만의 종교도 아니고 단지 정치적 대상으로 한정시켜 논의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모든 종교가 그렇듯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지니게 마련이다. 조선시대 불교도 ‘송유역불’이라는 정치적 차원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조선 왕조의 불경언해 문제도 단순히 특정 통치자의 취향이나 심리적 문제로 한정시켜 논의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주요 의의는 세 가지다.

첫째, 훈민정음 반포 570돌의 의미를 제대로 조명할 수 있다. 불경언해서의 발간과 보급 과정은 바로 훈민정음 발달 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거꾸로 불교와 한글 관계를 규명하지 않는다면 훈민정음 반포 570돌의 의미를 제대로 조명할 수 없다.

둘째, 현대 한국어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어 역사를 말뭉치를 통해 조명해온 연세대언어정보연구원과 훈민정음과 불교 관련 연구를 가장 깊고 넓게 해 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불교 관련 심층 연구를 수행해온 한국선학회가 동시 주최를 함으로써 학술대회의 의미를 더욱 빛내 주고 있다.

셋째, 한글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여 한글의 가치를 빛내고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직접 후원하여 이번 학술 대회의 의미가 더욱 깊다.